나이키 NIKE, Inc. · NKE · NYSE

연간 매출 고단위 한 자릿수 감소 안내와 중화권 −22%가 북미 +2%·비용 절감을 앞서고 Forward PER 29.6배도 부담이어서 부정 쪽으로 기운 상태

종합 판정
SELL
긍정 의견 2 · 부정 의견 4 · 보류 1

발급 시점 가격	외부 평균 목표가	52주 최저 · 최고	다음 실적 발표
$40.49	$36.45	$31.97 ~ $69.14	미정
2026.11.04 종가 · +5.2%	−10.0% · 37명	고점 대비 −41.4%	26년 4분기 실적

01 핵심 데이터 4가지

연간 매출 고단위 한 자릿수 감소 안내
10/1 발표 · 조정 EPS 1.15~1.35달러(구조조정 제외, 직전 GAAP 2.10달러) · 12월 실적 매출 컨센서스 −10.6%

중화권 −22%, 컨버스 −28%
26년 3분기 중화권 11.8억 달러(통화 기준 −26%) · 컨버스 2.6억 달러

EPS 0.48달러, 예상 0.44달러 상회
26년 3분기 매출총이익률 42.8%(+0.6%p) · 북미 51.3억 달러(+2%)

Pace 구조조정으로 비용 절감
2031년까지 절감 약 25억 달러 · 판매관리비 −3% · 영업이익률 7.9% 유지

02 리서치 팀 토론 — 쟁점 6개 판정

연간 안내 ×2	부정	부정 의견 쪽으로 판정합니다. 쟁점은 감소가 26년 3분기에서 끝나느냐이고, EPS 0.48달러가 예상을 넘었어도 연간 안내는 직전 GAAP보다 −36~−45% 낮고(참고 비교) 12월 실적 매출 컨센서스가 −10.6%라 감소 폭이 더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12월 실적(날짜 미정)에서 매출이 111.1억 달러 이상 나오면 판정이 바뀝니다.
중화권·컨버스 부진	부정	부정 의견 쪽으로 판정합니다. 북미 +2%는 반가운 변화지만 북미를 뺀 대부분 지역이 줄었고, 중화권은 통화 기준 −26%로 감소 폭이 더 컸습니다. 12월 실적(날짜 미정)에서 중화권이 −22%보다 나아지는지가 다음 확인점이며, 나아지면 판정이 바뀝니다.
밸류에이션	부정	부정 의견 쪽으로 판정합니다. PEG 1.34는 1을 넘고 동종 Forward PER 11.1배와의 격차가 커서, 성장률 +22.1%가 이 배수를 충분히 받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종은 3곳뿐이라 비교는 참고용이며, 12월 실적에서 회계 28년 예상 EPS 1.53달러가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Pace 구조조정	긍정	긍정 의견 쪽으로 판정합니다. 매출이 줄어도 영업이익률 7.9%를 지킨 것은 비용 절감이 숫자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구조조정 비용 약 3억 달러는 올해 한 번 들어가는 돈으로 안내 EPS에서 빠져 있으며, 투자자의 날(11/16~17 보도)에서 연도별 절감 목표가 나오면 근거가 더 분명해집니다.
현금·배당	긍정	긍정 의견 쪽으로 판정합니다. 쟁점은 배당을 유지할 힘이 있느냐이고 현금 83.7억 달러가 부족분을 여러 해 버틸 만큼 큽니다. 분기 영업현금흐름은 직전 분기 16.4억 달러에서 1.4억 달러로 계절에 따라 크게 움직여 한 분기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2월 실적 현금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오는지 봅니다.
투자자의 날	보류	판정을 보류합니다. 행사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11/16~17 일정도 회사 공시가 아닌 보도 기준이라 지금은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행사에서 중장기 매출·마진 목표가 제시되면 긍정 의견, 목표 없이 구조조정 설명에 그치면 부정 의견으로 다시 봅니다.

종합 판정은 SELL입니다. 연간 안내(핵심 쟁점)와 중화권·컨버스 부진, 높은 배수가 부정 의견으로 판정돼 가중 4표 대 2표(보류 1)로 2표 차이입니다. 11/16~17 투자자의 날(보도)과 12월 실적에서 매출 111.1억 달러 이상, 중화권 감소 폭 축소가 확인되면 다시 봅니다.

03 판정이 바뀌는 조건

▲ 판정이 좋아지는 조건

12월 실적에서 매출 111.1억 달러 이상
컨센서스를 넘으면 감소 폭이 안내보다 작다는 근거가 되어 긍정 의견 근거가 커집니다

투자자의 날에 중장기 매출·마진 목표 제시
11/16~17(보도 기준) 연간·중장기 가이던스가 나오면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종가 200일선 45.68달러 회복
+12.8% 올라서면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 판정이 나빠지는 조건

12월 실적 매출이 111.1억 달러 미달
감소 폭이 안내보다 크다는 부정 의견 근거가 굳어집니다

중화권 매출 감소가 −22%보다 악화
가장 큰 해외 성장 시장의 부진이 길어진다는 신호입니다

종가 5일선 39.04달러 이탈
−3.6% 내려가면 반등이 꺾이고 볼린저 하단 34.29달러까지 거리가 열립니다

04 분기 실적 단위 억 달러

	25년 3분기	4분기	26년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	117.2	124.3	112.8	109.7	112.1
영업이익	9.3	10.1	5.5	13.1	8.9
순이익	7.3	7.9	5.2	10.7	7.1
영업이익률	7.9%	8.1%	4.9%	11.9%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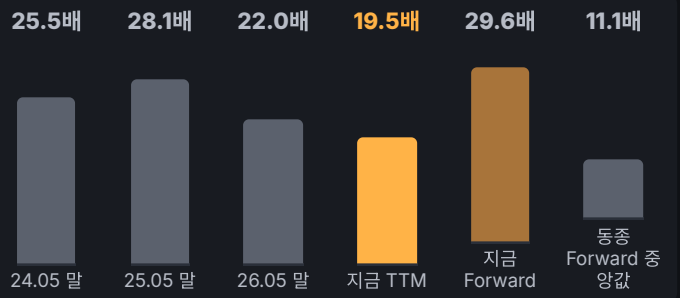
매출총이익률 **42.8%** 1년 전 42.2%

영업이익률 **7.9%** 1년 전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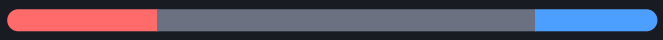
순이익률 **6.4%** 1년 전 6.2%

잉여현금흐름 마진 **−0.6%** 1년 전 0.1%

05 PER 변화



06 증권가 의견



매수 10 보유 25 매도 8 평균 $36.45 · 최고 $60.00 · 최저 $19.00

월프 리서치	28달러	2026.10.22
바클레이스	45달러	2026.10.22
구겐하임	50달러	2026.10.22
BTIG	50달러	2026.10.22

07 재무 체력

현금·단기투자 (8/31) **83.7억 달러** 85.8억 달러 → −2.4%

총차입금 (8/31) **110.7억 달러** 110.6억 달러 → +0.1%

자기자본 (8/31) **152.2억 달러** 134.7억 달러 → +13.0%

08 최근 뉴스

9/9 임원 3명 주식 매도 신고(Form 4)
COO Venkatesh Alagirisamy 외 2명 · 37.59달러 · 합계 약 37만 달러

10/1 구조조정 'Pace' 공개(8-K 항목 2.05)
2031년까지 절감 약 25억 달러·비용 약 10억 달러 · 올해 비용 약 3억 달러

11/4 다우 상승으로 소비주 동반 반등
보도: 다우 랠리가 소비재를 끌어올림 · 데커스·룰루레몬도 상승

09 다가오는 일정

11월 6일 · 옵션 주간 만기
전체 만기 합산 거래 최다 콜 행사가 45달러(44,171계약)·풋 40달러(7,826계약)

11월 13일 · 옵션 주간 만기
콜 거래 비중 73.5%, 풋/콜 거래량 비율 0.36으로 콜이 우세

11월 16~17일 · 투자자의 날 (보도 기준)
독일 매체 보도 기준 · 다음 성장 전략과 중장기 가이던스 복귀 여부가 관심

10 주요 리스크

연간 안내 부진 (회계 27년 매출 고단위 한 자릿수 감소, 조정 EPS 1.15~1.35달러)
영향 상 · 가능성 상 · 확인 12월 실적 매출 111.1억 달러 이상 여부

중화권·컨버스 부진 (중화권 −22%, 컨버스 −28%)
영향 상 · 가능성 중 · 확인 12월 실적 중화권 매출 증감률

높은 배수 (Forward PER 29.6배, 동종 중앙값 11.1배)
영향 중 · 가능성 상 · 확인 회계 28년 예상 EPS 1.53달러 유지 여부

11 체크포인트

★★★ **12월 실적 (날짜 미정)**
컨센서스 매출 111.1억 달러·EPS 0.39달러를 넘는지

★★★ **투자자의 날 11/16~17 (보도 기준)**
중장기 매출·마진 목표가 제시되는지

★★☆ **종가 120일선 40.38달러 유지**
40.49달러에서 −0.3%만 내려도 이탈 · 이탈하면 5일선 39.04달러가 다음 확인점입니다

출처: investinglive·야후 뉴스 제목 · ms-aktuell.de·sharedeals.de 보도 · 나이키 10-Q · 8-K 목록 · 나이키 회계 27년 1분기 실적 보도자료 · 야후 파이낸스 내부자 거래 · 야후 파이낸스 동종 비교 · 야후 파이낸스 시세 · 야후 파이낸스 애널리스트 의견 · 야후 파이낸스 옵션 · 야후 파이낸스 일봉 · 야후 파이낸스 재무제표

리포트 원문: lightview.kr/report_nke · 이 요약은 원문에서 핵심만 옮긴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026 LightView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